

기고

### 용접·용단 불티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지키자

이기호 신안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위



건축공사장에서 위험작업을 하기 전에는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임시 소방시설은 소화기, 대형소화기, 간이 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 유도선, 가스누설 경보기, 비상조명등, 방화포 등이 있다. 용접·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 전에는 대형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방화포 등 임시 소방시설을 비치하고 작업하여야 하며, 공사 현장 작업자에 대한 수시 교육을 통해 안전의식을 고취 시키고 자체 훈련을 통해 유사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현장 안전 감독자의 지정과 안전 수칙을 준수시키고

지속적 의료 공사장 내 자체 순찰 활동을 강화하여 화재를 예방하여야 한다. 불꽃을 유발하는 중요공사인 용접·용단, 위험물 배관·볼트 교체, 그라인더·드릴 작업 등은 사전 신고를 작업 3일 전까지 소방서로 신고하면 화재 안전 컨설팅 및 현장 지도를 받을 수 있다. 용접·용단 작업 전 화기 작업을 건축물 내 관계인에게 공지하고, 간이 소화장치, 건조사(마른모래), 대형소화기, 용접 불티 등을 받는 방화포를

준비하고, 작업 중에는 가연성·폭발성, 유독가스 존재 및 산소결핍 여부 지속 검사, 용접 가스 실린더나 전기동력원 등은 밀폐 공간 외부의 안전한 곳에 배치하고, 작업자는 무전기 등 관리자와 비상 연락 수단 확보 및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용접·용단 작업 후에는 작업장 주변에 불씨가 남아 있는지 30분 이상 확인해야 한다.

건축공사장에서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을 작업자가 적극적으로 이행한다면 우리들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건축공사장에서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을 작업자가 적극적으로 이행한다면 우리들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건축공사장에서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을 작업자가 적극적으로 이행한다면 우리들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건축공사장에서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을 작업자가 적극적으로 이행한다면 우리들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칼럼

### 내가 할 일이라면 미루지 말고 실행하자

정기연 전 영암 신북초등학교 교장



2024, 갑진(甲辰)년 새해가 시작되었다. 일 년 동안 사용할 일기장이나 달력에 일 년 동안 내가 해야 할 일을 월별로 표시하고 표시된 달에 미루지 말고 실행하자. 내가 할 일은 목표 달성을 위해 일 년 동안 꾸준히 할 일도 있고 월별로 할 일도 있다. 일어난 시간과 노동을 결합하여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말한다. 그 일을 누가 할 것인가를 생각해서 내가 할 일이라면 미루지 말고 단행해야 한다. 일은 그 결과가 나를 위한 일도 있으며 남을 위한 일도 있는데 남을 위한 일은 봉사 활동이라 한다. 할 일이 없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찾아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생은 살아가면서 나를 위한 일이나 남을 위한 일이나 할 일은 많다. 일에는 무슨 일을 먼저 할 것인지의 우선순위가 있는데 하루의 일도 우선순위를 정해 급한 일부터 처리해야 한다. 어떤 일을 지속해서 하면서 그 일한 대가를 받는 일을 직업이라 하는데 우리 인생은 직업을 가지고 일하면서 사는데 직업이 없는 사람을 실업자라 한다. 실업자는 자기가 할 일을 미루지 말고 찾아서 해야 한다.

일을 미루면 또 다른 일이 생겨 미룬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부하는 학생은 그날 해야 할 공부라면 그날 끝내야 하며 농부가 하루에 할 일을 정했다면 미루지 말고 그날 끝내야 한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습관적으로 일을 미루는 버릇이 생기는데 이것은 하루빨리 시정해서 고쳐야 한다. 내가 할 일을 남이 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좋지 못한 습관이며 실패한 사람들이 하는 습관이다. 내가 할 일을 누가 해주겠는가 생각해야 한다. 일을 미루고 남에게 의지하려는 생각은 일을 실천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보리밭의 종다리 이야기를 소개한다. 봄이면 보리밭에 종다리 새가 알을 낳으며 보리밭에 종다리 새끼가 부화하여 자라게 되는데 보리밭 동지에서 종다리 새끼는 어미가 물어다 주는 먹이를 먹으면서 자란다. 하루는 집 주인이 아들과 같이 밭에 와서 "보리가 익었으니 아랫집 김 서방과 같이 베어야겠다." 하며 갔다. 이 말을 들은 종다리 새끼들은 어미에게 들은 그대로 말했지만, 어미는 이사 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또 며칠이 지난 후 밭 주인이 밭에 와서 "이제는 이웃집 박 서방과 같이 와서 보리를 베어야겠다." 하며 갔다. 그 말을 새끼들이 어미에게 말했지만, 어미는 이사 갈 생각을 안 했다. 또 며칠이 지난 후 밭 주인이 밭에 와서 하는 말이 "보리가 익었으니, 내일은 내가 베어야겠다." 하며 갔다. 그 말을 들은 새끼들은 어미 종다리에게 말하자 어미 종다리는 "이사 갈 때가 되었구나! 서둘러 이사 가자." 하며 이사 갔다는 이야기다.

여기에서 어미 종다리가 이사하지 않은 이유는 자기의 할 일을 남에게 의지하려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자기가 할 일을 미루고 남에게 의지하려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 일은 못 하는 일과 안 하는 일이 있는데 못 하는 일은 할 수 없기 때문이지만, 안 하는 일은 할 수 있으면서도 미루고 핑계를 대며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할 일이라면 미루지 말고 서둘러 해야 하며 못 하는 일에는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 할 일을 보고 내가 못 하는 일인가 안 하는 일인가 분류하여 처리해야 한다. 공직자는 자기의 업무를 미루지 말고 안 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하는 일에 창의력을 발휘해 일을 처리해야 한다.

외부 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ihonam@naver.com](mailto:ihonam@naver.com)

기고

### 터널 안 급차선 변경 아찔, 대형사고 발생 개연성 높아

김덕형 무안경찰서 몽탄치안센터장 경감



실제로 터널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 수는 일반 도로보다 40%가량 많다고 한다.

또한 터널 내부와 외부의 밝기 차이로 인해 밝기 변화에 따른 적응 시간이 필요하다보니 터널 내 사고 등 돌발상황은 터널을 통과하는 다른 차량 운전자들이 빠른 대처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특히 터널 내부가 어둡다 보니 속도감 또한 많이 떨어져 오픈된 일반도로보다 사고위험이 훨씬 높게 된다.

교통의 발달로 전국 국도와 지방도, 고속도로에는 터널이 곳곳에 뿔려 있는데 우리나라 산지 특성상 상당수 도로에는 산을 가로지르는 터널형태로 시설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문제는 일반도로보다 더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엄연히 터널 내에서는 차선변경이 금지되어 있지만 최근 고속도로 터널내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후행차량과 추돌해 사고로 직결되는 사례가 심심찮게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터널 내에서 과속이나 차선변경, 운전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시 상당수 사고가 화재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

밀폐된 공간을 빨리 벗어나려는 대다수 운전자의 심리가 작용해 과속과 차선변경을 일삼게 되는데 터널 내 사고는 일반 도로와 달리 차량과 추돌하거나 터널 벽면과 충격하면서 일반도로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달리 대부분 화재로 이어지고 있으나 밀폐된 공간의 특성상 사고수습을 위한 접근에 많은 제약이 뒤따르게 된다.

터널 내 사고 발생시 당황하지 말고 운전자는 신속히 터널 내 안전지대로 대피하거나 비상전화를 이용해 위급상황을 신속히 경찰과 소방에 신고해 대형사고를 미연에 예방해야 한다.

일반도로에서야 급차선 변경으로 인한 주변 공간으로 차량을 피하는 등 방어운전이 가능하더라도 터널 내 급 차선변경시 주변 차량은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아주 기본적인 상식만 지켜도 안전하게 터널을 지날 수 있다.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이주여성긴급전화	1577-1366	▲기상예보	131
▲응급질병상담	1399	▲법률구조상담	132
▲미아·가출인 신고	182	▲인광알코올상담센터	222-5666
▲여성 긴급전화	1366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388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수도 고장신고	12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전기 고장신고	123
▲응급의료센터	1399	▲가스사고 신고	383-0019

**호남신문 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서구 유천로213스카이랜드309호

**발행인·편집인 김순열 편집국장 서선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유동3길 26 서주빌딩 101호 (061) 905-2011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mpn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행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